

# 전통 선사상 완벽하게 연출... ‘깊은 믿음’ 강조

## 특강-한암대중사의 선사상

### 무여 스님(축서사 선원장)

“한암 대중사님은 전통 선사상을 완벽하게 연출했다.” 4월 21일 ‘한암 대중사 수행학림’ 여섯 번째 주제인 ‘한암 대중사의 선사상’ 강의를 나선 무여 스님(봉화 축서사 선원장)은 대중사의 선사상을 이렇게 요약하며 “여러 선원의 조실로 남자를 제집하고, 조계종 종정으로 종단 내외의 존경을 받다가 좌탈입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여 스님은 또 “조사선 사상을 완벽하게 계승했다”며 “대중사님께서는 본래성불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무여 스님은 이 외에도 “선교를 견수했다”며 “방선의 여가를 이용해 선어록과 소의경전 전반을 특강하기도 하고, 심지어 인거 중에 <고강경>을 독송하게 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무여 스님은 “따라서 대중사의 선사상은 오늘 한국의 선종토(禪界土)와 같은 곳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무여 스님의 강의를 요약한 것이다.

### 자신이 부처임을 철저히 믿어라

오늘 강의는 승가오칙(僧伽五則)과 선원규례(禪院規例, 선문답(禪問答) 21, 참선곡, 화두 드는 법 등을 중심으로 실참실구(實參實究)면에서 대중사님의 선사상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참선을 하려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 대중사님은 선문답에서 “낸 처음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며, 자신의 마음이 법(法)이고 도(道)인 줄 알고, 구경에도 다름없음을 철저히 믿어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만일 이와 같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비록 만겁 동안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진정한 대도에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진실한 참구가 됩니까? 선문답 등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발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깊은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화두를 참구하되 다급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은 그 가운데 요묘함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면 집착이 가깝고



무여 스님은 4월21일 열린 ‘한암 대중사의 선사상’ 강의에서 ‘화두 참구에는 ‘적당히’와 ‘일맞게’라는 말에 온갖 지혜가 함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망각하면 무명에 떨어지게 됩니다.

천 갈래 만 갈래 의심덩어리는 다만 하나의 의심으로 고양이 쥐를 잡듯, 입뿔이 알을 품듯, 배고플 때 음식을 생각하고 목마를 때 물을 생각하듯, 사랑(思量)과 지해(知解)를 모두 놓아버리어(念起念滅 無氣忍) 한 포기의 품도 돌아나지 않고 한 티끌도 두지 않고서 다만 범정(凡情)을 다하고 특별히 성해(塵解)도 없이 성성영영(惺惺靈靈)하고 면밀하고 면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두 참구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사랑분별(思量分別)을 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구절씩 설명하겠습니다.

발심은 발보리심(發菩提心)의 준말입니다. 보리를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확고하고 철저한 마음을 내는 것이 발심입니다.

흔히 화두가 안 된다. 참선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발심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발심이라면 어찌 화두 안 되는 것을 고심할 것이며, 어찌 깨치지 못할까 걱정할 것이며, 어찌 생사문제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발심을 하려면 인성 무상(無常)을 깊게 느껴야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불법을 만나기가 어려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 원력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앉은 자리를 바로 보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이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 자리는 한 생각 돌려서 발심하면 바로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발심하지 않고 자기를 찾으려는 것은 스스로 눈을 가리고 무엇을 찾으려는 것과 같고, 손에 금명어리를 쥐고 금명맥을 찾으려고 해매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암 스님께서는 “원력을 세우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력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기대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참선자는 꿈과 희망이 충천해야 하고, 자기 목표를 향해 한결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대중사님께서는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모든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도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만 불법의 대해(大海)를 건널 수 있습니다. 대신심(大信心)은 대의심(大疑心), 대분심(大信心)과 더불어 화두 참구의 삼대 요체로 보기도 합니다. 참선자는 불성(佛性), 불법(佛法), 화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화두는 어떻게 참구할 것인가? 대중사님께서는 ‘화두 드는 법’에서 화두 참구 요령을 간단명료하게 함축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급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은 그 가운데 요묘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화두를 급하고 강하게 들면 마음이 불안하고, 들뜨고, 동요가 일어나기 쉽고, 집중이 잘 안되고, 진실한 의심을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화두 참구에는 ‘적당히’와 ‘일맞게’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적당히’와 ‘일맞게’라는 말에 온갖 지혜가 함축돼 있습니다.

화두 참구는 부처님 말씀처럼 거론고졸을 타듯이 해야 합니다. 거론고 소리를 곱게 하려면 거론고졸을 되게 조이지 말고 너무 느슨하지도 말며 적당히 맞추어야 합니다. 뜯는 것도 아주 알맞게 뜯어야 묘음(妙音)이 납니다.

그렇듯이 화두 참구도 알맞게 적당히 의심을 일으켜야 진의가 돈발하기 쉽고 선정에 들기 쉽습니다.

또 대중사님께서는 화두 참구는 “부지런히 하면 집착이 가깝고, 망각하면 무명(無明)에 떨어지게 쉽다”고 하셨습니다. 화두는 부지런히 하되 집착은 말아야 하고, 그러면서 놓치지 않고 성성(惺惺)하게 들

어야 합니다. 화두를 망각하면 무명에 떨어져 어두워집니다.

화두의 생명은 의정(疑情)입니다. 화두는 삼세제불과 역대 조사님의 진수(眞髓)가 드러난 법문 중의 법문이지만, 참선자에게는 오직 의정을 일으켜 타파하는 데 본뜻이 있습니다.

의정을 일으키되 의정이 크면 크게 깨칠 수 있고, 의정이 없으면 깨칠 수 없습니다.

### 화두 들면 다급하지도 느슨하지도 않게

또 스님께서는 “고양이가 쥐 잡듯이, 입뿔이 알을 품듯이”이라고 법문했습니다. 화두 참구는 쥐를 잡으려는 고양이처럼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쥐 구멍만 노려보듯이, 마음과 눈을 화두 한 곳에 매어 두고 또렷또렷하게, 생기 있는 정신으로 공부를 지어가야 하고, 살아있는 의정을 일으켜야 합니다.

화두는 단기간에 깨치겠다는 생각도 말고, 급히 해마치겠다는 생각도 말고, 낫이 알을 품듯이 한결같이 꾸준히 들어가면 시절인연이 도래해 병어리가 앞에서 태어나듯 타파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화두 드는 법에서 “사랑과 지해를 모두 놓아버리어, 한 치의 흉포기도 돌아나지 않고, 한 티끌도 두지 않고서”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란 생각하는 것, 지해란 알음알이를 말합니다. 두 가지 모두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치고 나서 제 일성(一翫)으로 ‘아! 기특하구나, 일체중생이 부처님과 꼭 같은 지혜와 덕성을 갖추었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본래는 부처, 본래 이미 성불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처가 되지 못하는가? 바로 번뇌망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사님께서는 번뇌망상과 번뇌망상으로 일어나는 알음알이를 모두 놓

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지식으로 중무장합니다. 이 지식도 마음공부에서는 번뇌망상입니다. 인간이 지식 덕분에 편리하고 풍요롭게 살아가지만, 지식 때문에 점점 왜소해지고 더 불행해지고 괴로워지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현대인일수록 더 수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수행은 해야 되는데 비우지 못하니 부득이 방편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화두 참선이고, 요즘 유행하는 수행법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경계할 것이 알음알이입니다. 요즘 선에 관한 책들이 범람해 실참실구는 안하고 알음알이로 해 마쳤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안은 깨쳐야지, 지식이나 이론으로 생각하고 따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번뇌망상과 알음알이 놓아라

“특별히 성해도 없이 성성영영하고 면밀하고 면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성해도 없이”란 특별한 마음도 없이, 어떤 마음도 갖지 않고란 뜻입니다. 화두는 성성영영하게, 즉 분명하게 또렷또렷하게 들어야 합니다.

성성영영은 공부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견처(見處) 경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쥐 잡듯이’ 하라는 것이 바로 성성영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면밀하고 면밀해야’ 합니다. 작가가 작품을 만들 듯이, 귀중한 금속으로 귀중품을 만들 듯이 빈틈없이, 정지해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극하게 간절하게 하면 어찌 공부가 안 될 것이며, 어찌 생사 문제를 걱정할 것이며, 어찌 견성못할까 걱정하겠습니까.

평창 월정사/성리-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한암 스님에 대한 관심 확산 ... 내년엔 좀 더 밀도있게”

### interview

수행학림 회향한 월정사 주지 정녕 스님



3월간의 일정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다소 벅깝게 느껴진 것 같다고. “내년 3기 수행학림 부터는 전체 일정을 1박 2일로 줄이는 대신 내용을 좀 더 밀도있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스님은 한암 스님에 대한 강의나 화엄산림

“대중적 관심은 널리 확산됐지만 실제 참여한 대중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여한 사람들은 매우 의미 있고 좋은 수행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근세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승이자 조계종 초대 종정이었던 한암 스님을 배우는 6주간의 ‘한암 대중사 수행학림’을 회향한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녕(사진)은 이번 행사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

프로그램 내용은 좋았지만 한암 스님 사상에 대한 강의와 <화엄경>을 각 품별로 나눠 법문한 화엄산림, 철야정진 등이 포함된 실참 프로그램 등 2박

도 현대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조명할 뿐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할 계획이다.

“한암-탄허 스님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오대산의 가치를 한국불교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정녕 스님은 “화엄은 원융적 무애사상으로 미래사회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

### 용 주 사

주 지 정 호  
부 주 지 성 직  
총무국장 영 명  
기획국장 성 호  
교무국장 성 무  
재무국장 응 진  
포교국장 덕 본  
호법국장 원 오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  
TEL 031)234-0040  
FAX 031)234-2818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 법 주 사

주 지 도 공  
부 주 지 무 상  
총무국장 원 장  
교무국장 장 원  
사회국장 도 연  
포교국장 각 우

사부대중일동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번지  
사무실 043)543-3615, 8655,  
원주실 043)543-4755  
팩 스 043)543-3620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 銀 海 寺

주 지 중 화 법 타  
부 주 지 선 광  
연수원장 해 해  
총 무 무 하 중  
기 획 획 보 명  
교 무 무 본 명  
재 무 무 연 암  
호 법 법 선 조  
사 회 회 적 연

총립 은해사승가대학원  
원 장 요 산 지 안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전화 (054)335-3318~9 팩스(054)335-0293  
홈페이지 www.eunhae-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 고 운 사

회 주 현 봉 근 일  
주 지 송 암 혜 승

총 무 호 성  
기 획 지 현  
교 무 성 공  
재 무 노 현  
사 회 현 봉  
포 교 해 각  
호 법 정 우

의성노인복지회관 관장 탄 하  
영주장애인복지관 관장 도 룬

사부대중일동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16  
TEL 054)833-2324  
www.gounsa.net

화엄산림-제6강 (39품)

해남 스님(통도사 전계사)

통도사 전계사 해남 스님은 4월 22일 열린 '한일대종사 수행학림' 중 '화엄산림'에서 <화엄경> 39품을 보현보살의 10종 대원(大願)을 중심으로 법문했다. 해남 스님은 <화엄경>을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눈 뒤 신해행중(信解行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공양은 옷 향 등 괴일 공양도 있었지만 더 좋은 것은 경전에 실한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참선수행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근거에 따라서 엄불할 사람은 엄불하고, 주력할 사람은 주력하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는 것도 훌륭한 수행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해남 스님의 법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화엄경을 전체 네 단락으로 나누면 신해행중(信解行證)입니다. 신(信)이란 바른 믿음, 믿음이야 말로 도의 으뜸이고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도 부처님과 법, 스님을 믿는다. 귀의한다고 그러합니다. 이 삼귀의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올바른 이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안다면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말로만 그럴듯하면 안 됩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결국 바로 믿고 알고 실천하면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화엄경>의 주인공은 문수와 보현입니다. 문수는 지혜고 보현은 실천입니다. 이 문수와 보현을 합치면 바로 부처님입니다. <화엄경>을 설하는 부처님은 39품 가운데 2품만 하고 다른 것은 다 보살이 설합니다. 그 대표보살이 보현과 문수입니다. 입법계품의 주인공은 문수보살입니다.

물질적인 재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왔다 가 가는 것입니다. 정말 보배는 아늑다라삼마삼보리심을 발하는 것,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것, 그것이 아야말로 영원한 보배입니다.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칠보를 보시하더라도 경전 한 구절을 수지독송한 것만 못합니다. 물질적인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혜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재는 재물을 다 버리고 구도의 행을 갖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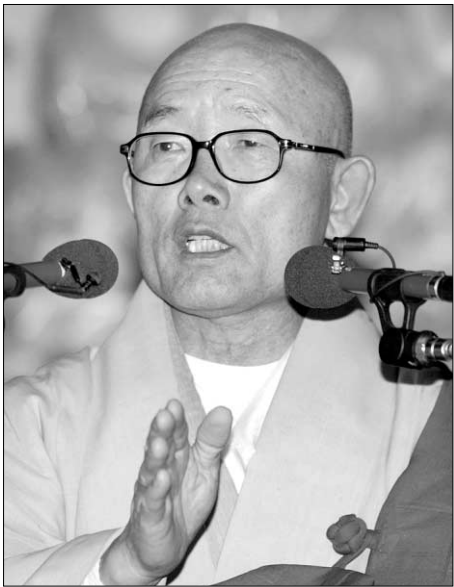
출가에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같이 출가하는 것이 진짜 출가입니다. 몸은 출가했지만 마음은 출가하지 못하면 가짜 스님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은 몸은 출가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출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스님 이상으로 존경 받는 인도의 유마거사, 승만부인, 중국 방거사 등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몸도 마음도 출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속세에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미륵부처님도 53선지식에 들어갑니다. 미륵부처님이 선재를 만나 손가락을 핑기는 순간 선재동자가 미륵누각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륵누각을 구경하는 사이 신비한 종교체험을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법문 들은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발심시킨 문수보살에게 다시 가라고 합니다.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데 초등학교부터 다시 갔다 오라는 격입니다. 그러나 선재동자는 낙담하지 않

- 보현보살의 10종 대원**
- ①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기
  - ② 부처님 찬탄하기
  - ③ 널리 공양하기
  - ④ 엄장 참회하기
  - ⑤ 남의 공덕 기뻐하기
  - ⑥ 살법 칭하기
  - ⑦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길 청하기
  - ⑧ 항상 부처님따라 배우기
  - ⑨ 중생을 수순하기
  - ⑩ 모든 공덕을 널리 회향하기

4월 22일 열린 '화엄산림'에서 통도사 전계사 해남 스님은 보현보살의 10종 대원을 중심으로 법문하며 "우리도 뜻을 세우고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고 다시 문수보살을 친견하려고 하니 그때 문수보살이 감동해 좋은 가르침을 주고 마지막으로 소개한 사람이 보현보살입니다. 이 보현보살이 <화엄경> 법회 마지막 법문을 합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천행입니다. 보현행을 실천해야 부처님의 지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예경입니다. 모든 부처님을 예배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래출현품은 여래가 세상에 출현한 것입니다. 이 여래는 쇠가니 부처님 한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중생이 모두 부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에 유명한 예기가 있습니다. 비유컨대 한 티끌을 파괴시켜 그 속에서 삼천대천세계 경전을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의 허망한 한 생각 그것을 깨트리면 그 속에 여래의 무량한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중생의 허망한 생각을 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정여래입니다. 여래를 청정하다. 부처님을 청정하고, 모든 사람들의 좋은 점만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널리 공양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공양은 옷 향 등 괴일 공양도 있었지만 더 좋은 것은 경전에 실한 그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경전에 말씀하기를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칠보를 공양올리더라도 경전 한 구절을 제대로 읽고 알고 수행하는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또 목숨을 바치더라도 미진수습을 지날 때까지 경전 사구게 하나를 수지 독송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참선수행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근

기에 따라서 참선할 사람은 참선하고, 엄불할 사람은 엄불하고, 주력할 사람은 주력하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경을 읽는 것도 훌륭한 수행법입니다. 네 번째는 엄장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을 때 참회하면 새롭게 됩니다. 사람 몸을 받은 사람이 착한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수희공덕(隨喜功德)입니다. 남 잘되는 것 보고 덩달아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덕 지은 사람에게 버금가는 공덕이 됩니다. 남 잘되는 것을 보고 배 아픈 사람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법륜(法輪) 굴리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도 항상 법문 들을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법문 들을 때는 마음을 텅 비우고 초심을 가져야 합니다. 법문 들 때는 백전 갈래의 물결이 태양빛을 그대로 물속에 비추듯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선입견을 갖지 말고 들으면 어려운 법문도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또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바로 부처님, 보살, 선지식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스승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한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대로 행동하게끔 발원해야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만 가지 경계를 따라서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굴러가지만 본래 불성지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사나워도 바다 밑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마음이 경계를 따라 흘러가더라도 본래 마음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 본성을 알게 되면 기뻐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게 됩니다.

고통 받는 중생들을 보고 연민심을 일으켜 '중생

# “우리도 10종 대원 세우고 실천해야”

## 수행학림 회향 세미나 요약

### “선사상의 핵심 ‘단박에 깨달아 본성 봐라’”

4월 24일 월정사에서 열린 '한일대종사의 사상과 그 영향' 세미나에서 발표에 나선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은 "선사의 선지는 '단박에 깨달아 본성 보기(頓悟見性)', 선풍은 '항상 뉘아도 뉘지 않는 것처럼 뉘기(無念淨行)'에 있다"고 강조했다. 종범 스님은 이어 <한암일발묵(漢巖一鉢默)>에 수록된 법어 '일진화(一塵話)'의 구절을 예로 들며, "한암 선사는 표현이 깨달으면 본래 생긴 자신 부처의 친진한 모습이 절묘하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천만가지 생각은 용광로의 한 점 눈발 같이 사라지고 광대한 지혜의 광명은 곳에 따라 나타난다"며 "선사는 달마남종선의 종자인 돈오연



가교 역할을 한 선사였다"며 "근·현대 불교사 및 조계종단의 역사와 흐름을 검토할 경우, 반드시 유의해야 할 스님"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자로 나선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이와 관련 "1929년 조선불교 선교양종 교정 전현 위원회가 선출한 7인의 '공동 교정'이 과연 현재의 '1인 종정'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하며 "오히려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원로의원으로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고영섭 교수는 이어 "종정 역임 횟수와 상관없이 한암 스님은 불교집안을 넘어 종정 위상의 자리 매김을 분명하게 한 선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암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결(一生敗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윤창조 민족사 대표는 "일생패결"은 한암 선사가 24세부터 37세까지의 구도과정과 생애 선사상, 4차례 걸친 인도 철학과는 "한암 선사는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믿고 깨닫자는 것이 선의 핵심이라 했다"며 "선사의 이 논리를 우리의 환경에 확대시켜 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곧바로 극락정토가 되기에 참선과 엄불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한암과 조계종단'을 주제로 발표한 김광성 교수(부천대)는 "일제 말과 패망까지 종정을 4차례 역임한 한암 스님은 근대불교와 현대불교의

'패결'이란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패결'을 '실패'의 이미지로 보아 결양의 표현으로 볼 것인지 '수행자의 가풍'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철우 기자

### 참선과 엄불, 둘 이념 강조 종정 위상 내외에 확실히 세워

성을 선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평에 나선 성본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도 "돈오견성의 선지를 펼쳐다는 점에서 한암 선사상의 근본이 된다"며 "반뇌 망명의 중생심을 자각, 불심으로 전환해 무애자재한 깨달음의 삶을 보살도의 원리와 이타행의 삶으로 회향했다"고 말했다.

한암 선사의 참선과 엄불관에 대한 주제도 발표했다. '바가바드기타'와 관련하여 본 한암의 엄불참선수이론"을 발표한 김효성 교수(동국대 인도 철학과)는 "한암 선사는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믿고 깨닫자는 것이 선의 핵심이라 했다"며 "선사의 이 논리를 우리의 환경에 확대시켜 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곧바로 극락정토가 되기에 참선과 엄불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한암과 조계종단'을 주제로 발표한 김광성 교수(부천대)는 "일제 말과 패망까지 종정을 4차례 역임한 한암 스님은 근대불교와 현대불교의

을 견져야 한다'는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보리심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중생으로 인해서 연민심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보리심 일으키고, 보리심으로 인해 무상정각을 이룹니다.

사홍서원만은 항상 지켜야 합니다. 성불할 때까지 변함없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과거 모든 부처님도 사홍서원에 의해서 성불했고 미래의 부처님들도 이를 통해 성불할 것입니다. 현재 수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는 것을 회향이라고 하는데 본래 회향의 뜻

은 지금까지 하던 것을 딛 곳으로 방향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첫째 중생회향입니다. 지금까지 나 혼자만 잘되려고 했지만 모든 중생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리회향입니다. 지금까지는 욕심 부리기 위해 했지만 깨달음을 얻기 위한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회향과 발원은 비슷한 말입니다. 불국토를 발원하는 것이나 개인에 집착하던 것을 대중의 지혜쪽으로 회향하는 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선재동자와 같이 열 가지 모두 원력을 세우고 실천해 봅시다. 평상 월정사/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예술이다.



# 불법 佛법은 의학이다

대한불교조계종제 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을  
“구구절절 알이 되는 감로수로다” (감탄하시었다)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 “봄이 그냥 오듯 꽃도 그냥 핀다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로야.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 큰스님 44인이 들려주는 나를 깨우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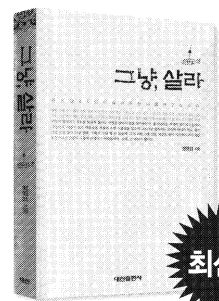
법정 무비 성수 혜국 우룡 일오 원담 명정 인환 혜성 지중 대효 고산 지안 금산 대원 혜정 범룡 각성 정광 암도 지유 지관 수안 현산 해남 명성 월운 고우 지용 정천 묘엄 성타 묵산 월주 지환 천운 상문 해산 진철 혜거 정무 천룡 보성

장영섭 기자가 발로 뛰며 쓴 글은 불자들에게만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 문외한이 있어보아도 능히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이 글을 통해 불교의 요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평이한 작가의 글을 읽다보면 어느새 불교의 전문가가 돼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특히 생활에 갖들려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고뇌와 번뇌를 날려버린 지혜가 구절마다 들어 있어 모든 분들에게 권합니다.

-한때 스님조계종 중앙총회위원장 · 정월스님 사명(이)기 기자

# 그냥, 살라

장영섭 지음/336쪽/15,000원



최신간

www.ssdp.co.kr

TEL : (02)3443-7233~4 FAX : (02)3443-2683 대산출판사